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가뭄 대응 비상체계 가동

서민재 기자 wp0603@naver.com 입력 | 수정 2026.08.02 13:59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일원 경주소방서 긴급 살수차 지원 및 왕신천 내 엔진양수기를 설치하여 긴급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용수 확보에 나섰다.

경주지사에 따르면 올해 경주시 강수량은 321.7mm로 평년 대비 58.4%에 그친다.

특히, 영농기 6~7월 강수량은 90.9mm로 평년 대비 31.2%에 머무는 등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 7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8.7% 수준으로,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주시사는 물관리 설명회 및 용수절약 현수막 설치 등 용수절약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양수저류시설 11곳, 대체급수 관정 29곳, 배수로 농업용수 재사용 15곳, 엔진양수기 35대를 긴급 설치하는 등 55곳에 한해대책 시설을 운영 중이다.

또한 경주소방서 긴급 살수차 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민간업체 급수차, 레미콘차 등을 임대해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 하류부 긴급 용수공급을 하고 있다.

박기철 지사장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배수로 퇴수물 재사용, 신규 관정 개발 확대 등 긴급 조치해 지속적으로 가뭄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